

6일 Market Index			
↑ 코스피	5450.33	↓ 코스닥	1047.37
	(+73.03)		(-16.38)
↓ 금리 (연이자율)	3.432	↓ 환율 (원/달러)	1503.95
	(-0.016)		(-1.25)



## 中 실적 시들... 美·유럽 등 '글로벌 무대' 확장

### K뷰티 지도 바뀐다

#### ① 수출국 中→美 전략 다변화

한때 중국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K뷰티 산업이 북미·유럽 등 서구권으로 진출하는 등 새로운 영토를 발굴하고 있다. 시장은 넓어지고 기업들의 전략은 다양해지고 있다. 생존을 위한 차별화 시도, 그리고 유통을 넘어 글로벌 새질서를 설계하려는 플랫폼 전략까지. 시장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나아가 새 트렌드를 주도하려는 K뷰티 기업들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짚어 본다. (편집자주)

국내 뷰티 기업들이 새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에 주력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6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화권에서도 실적 반등을 확인했다. 2025년 기준, 미주 매출과 중화권 매출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0%, 0.5% 증가했다. 다만 전체 매출에서 미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4%에서 2025년 15%로 커졌고 중화권 비중은 13%에서 12%로 줄었다.

#### 아모레퍼시픽 서구·중화권 실적 반등 주주 가치 제고 위한 미래비전 구체화 애경산업·LG생활건강 해외 부진 수출국 다변화, 중국 차별화 전략

아모레퍼시픽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인도 등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해 성장 구조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에스트라, 헤라 등 '뉴 뷰티' 브랜드 입지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둔다. 에스트라는 더마 화장품 브랜드로, 지난해 미국에 진출한 데 이어 올해부터 유럽에서도 본격 선보여지고 있다.

메이크업 브랜드인 헤라는 전 세계 팬덤을 보유한 K팝 아이돌인 필릭스를 브랜드 모델로 선정하는 등 국내외 소비자와 접점을 마련했다. 오는 10일에는 브랜드 대표 제품인 '센슈얼 누드 글로스'의 신규 색상 2종도 글로벌 동시 출시한다.

해외 사업에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은 수출국 다변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 시장 공략을 차별화하는 모습이다.

<3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내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출퇴근제) 시행을 이틀 앞둔 6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구에 2부제 시행 관련 내용이 안내되고 있다. /뉴시스

## 스타필드·AI 인프라 구축 '신세계 2막' 속도

### 정용진 회장, 경험·인프라 기반 확보 "고객 경험의 확장이 신세계의 확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사진)의 투자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소비 중심 유통기업에서 벗어나 '경험'과 '인프라'로 축을 옮기며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 회장은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초대형 복합시설 '스타필드 청라' 건설 현장을 직접 찾으며 현장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스타필드 청라는 2만3000석 규모 멀티스타디움과 호텔, 쇼



핑몰, 인피니티폴 등을 결합한 복합레저테이먼트 시설로, 완공 시 국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단순 쇼핑몰을 넘어 체험형 경험 공간으로의 진화를 상징하는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정 회장은 "고객 경험의 확장이 곧 신세계의 확장"이라며 완성도와 안전을 강조했다. 완공 이후 SSG 랜더스가 휴거장으로 사용할 예정인 만큼 스포츠·문화·쇼핑·레저가 결합된 새로운 상권 모

델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세계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테크기업 '리플렉션AI'와 손잡고 250M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 것으로, 최소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단순 설비를 넘어 AI 인프라·소프트웨어·솔루션을 통합 제공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구축이 목표다. 엔비디아 GPU가 탑재될 예정이며, 양사는 연내 합작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4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 SK하이닉스, 4년내 HBM5 출시 전망

###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 속도

SK하이닉스가 2029년 8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5)를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차세대 HBM 주도권 경쟁의 핵심으로 꼽히는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에 속도를 내며 기술 우위 확보에 나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BE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즈(BESI)의 통합 하이브리드 본딩 솔루션을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기술은 대역폭과 지연시간, 전력 효율, 속도 등 인공지능(AI) 메모리에서 요구되는 핵심 성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기존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하지 않고 반도체 칩 사이를 구리(Cu)와 구리(Cu)로 직접 접합하는 기술이다. 칩 간 간격을 줄여 두께를 낮추고 데이터 전송 속도와 전력 효율, 방열 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어 차세대 HBM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현재 HBM 제품은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JEDEC) 기준 완화에 따라 최대

16단까지는 기존 TCB 공정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더 높은 대역폭과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기업들은 HBM4(6세대) 이후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차세대 HBM 공정 전환을 위한 검증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4~5월부터 본격적인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장비업체들과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社告

##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부문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①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 및 평가)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② 모집인원: 00명  
③ 응시자격  
④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6년 8월 졸업 예정 자 응시가능)  
⑤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⑥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⑦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제출서류

① 회사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①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30일(목)  
②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4월 30일 도착분)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메트로빌딩)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년 5월 8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 취재역량 평가시험

① 일시: 2026년 5월 13일(수) 10시 ~ 16시 40분  
② 장소: 추후 통지  
③ 내용: 공지하는 주제로 취재기사를 작성하여 제출  
■ 1차 실무면접  
①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② 일자: 2026년 5월 14일(목)~15일(금) 중 1일  
③ 장소: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④ 기타: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2차 최종면접  
① 대상: 취재역량평가시험 및 1차 실무면접 합격자 <2면에 계속>



### 메트로 한줄뉴스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역세권 용적률 1.4배 확대  
▲ 정청래 "공천 결과 가처분 신청하면 공천 불복으로 간주하겠다" /사진 뉴시스

▲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 줄인다... "빵 안 굽는 베이커리카페 배제"  
▲ 황중우 해수부 장관 "선사·정유사 '홍해 우회' 지원

▲ 박주민 "정원오 측, 여론조사 결과 가공"...정원오 "그럴 이유 없어"  
▲ 국정원 "김정은 위상 많은 변화...정상국가 의도"